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먹지도 입지도 즐겁지도 못한다. 돈의 논리가 곧 이 세상의 논리이고, 돈만 많다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다.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은 우리 사회 가장 상류층의 모습을 통해 돈의 힘이 빠져 허우적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누구든 로또복권 일등 당첨을 꿈꾸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돈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만,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돈의 맛은 그리 달콤하지 않은 것 같다. 돈의 늪에서 빠져나오고자 몸부림치는 윤희장(백윤식)의 영화속 모습은 언뜻 이렇듯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작품 속에서 유

위법을 다시 공부하여, 복잡적이고 심층적인 감동을 담은 작품을 쓰셨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그리하여 남긴 곡이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되는 마지막 세 곡의 피아노 소나타들(제19번 C단조 D.958, 제20번 A장조 D.959, 제21번 B플랫장조 D.960)이다.

겨겨가는 생명의 심지 앞에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마지막 갈망을 담아 써낸 작품들로, 세 곡 모두 그가 죽은 해인 1828년에 쓰여졌다. 그 가운데서 제19번은 그가 목표로 했던 베토벤적인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영화에 사용된 음원은 알프레드 브랜델의 연주다. 방대한 레파토리를 자랑하는 피아니스트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슈베르트는 브랜델이 장기로 하는 레파토리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중용적이면서 학구적인 연주로 교과서적인 연주의

'돈의 맛' 중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19번'

돈의 늪에 빠진 자들을 위한 소나타

일하게 음악을 듣는 윤희장의 모습은 돈에 길들여진 그가 찾던 것이 무엇인지 어렵게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번쩍이는 대리석이 깔린 대형 거실, 수천만원의 호가하는 맥킨토시 애플과 B&W 스피커가 세팅되어 있다. 고개를 숙인 윤희장은 애플을 들고 음악을 듣는다. 어둠에 잠긴 그의 표정 위로 흐르던 그 음악은 바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2악장이다.

윤희장의 죽을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슈베르트의 소나타는 돈의 늪에서 빠져나오고자 했던 윤희장이 유일하게 기릴 수 있었던 희망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슈베르트는 자신이 존경하는 베토벤과 비교해서, 자기의 작품들은 중용적이고 표피적이라고 평가했고, 베토벤의 대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독특한 연주로는 러시아의 거인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의 라이브 레코딩이다. 무대 위에서 오로지 한 줄기의 빛으로만 조명을 했던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준다. 특히 2악장 아다지오는 극도의 긴장과 이완이 공존하는 연주로 엄청난 매니아를 몰고 다녔던 리히터 연주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최근 녹음으로는 노르웨이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베 안즈네츠의 연주가 기억에 남는다. 탄탄한 기교를 바탕으로 그가 만들어내는 슈베르트의 세계는 아주 단단하다. 악곡의 구조를 명쾌하게 드러내는 연주로 한층 한층이 모두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6~7일 광주문화예회관 공연

역동적인 춤과 섬세한 연기 김지영·이동훈

러시아 콩쿠르 베스트 파트너상 김리회·정영재

최고의 테크닉... 스타급 주역들을 만난다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간결하지만 세련된 무대와 조명, 군무진들의 탄탄한 앙상블, 솔리스트들의 파워풀한 춤. 그 중에서도 주역으로 무대에 선 김지영·이동훈 커플의 테크닉과 연기는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 공연' 초청작으로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국립발레단의 공연은 스타급 발레리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레팬들을 뜨겁게 하고 있다.

6일(오후 8시)에는 김지영·이동훈 커플이 무대에 오른다.

김지영은 설명이 필요 없는 국립발레단의 최고 스타 발레리나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바가노바 발레학교 졸업 후 1997년 최연소로 국립발레단에 입단한 그녀는 1998년 한국인 최초로 파리 콩쿠르 듀엣 부문에서 입상하였으며 2002년에는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에 입단, 주역무

용수로 활동했다.

2007년에는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로마 국립오페라발레단의 초청을 받아 '백조의 호수'와 '돈키호테'를 공연했으며 지난 2009년 '신데렐라'를 통해 다시 국립발레단으로 돌아온 후 다양한 작품들의 주역을 맡아 발레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세종대 재학중 국립발레단에 특채된 이동훈은 입단 3개월만에 '호두까기 인형'을 통해 주역으로 데뷔, 발레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신데렐라', '왕자호랑이', '백조의 호수', '지젤' 등 국립발레단의 대표작에서 주역을 맡은 이동훈은 정확하고 역동적인 춤과 섬세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레리나다.

7일(오후 5시) 무대에 서는 김리회와 정영재 역시 발레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커플이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 2010 러시아 페름 아라베스크 콩쿠르 베스트 파트너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파트너십을 자랑하고 있다.



김지영



이동훈



김리회



정영재

영국국립발레단 솔리스트로 활약하다 국립발레단에 특채된 정영재는 남성다운 표현력과 점프가 특기인 발레리노. 영국국립발레단 작품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호두까기 인형'에서 주역으로 발탁돼 공연했던 정영재는 김지영과 커플을 이룬 '백조의 호수'를 통해 국립발레단 주역으로 데뷔했다.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특별상(2007), 아라베스크 콩쿠르 그랑프리·베스트커플상·심사위원상

(2010)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06년 입단한 김리회는 지난 2006년 '호두까기 인형'을 통해 주역으로 데뷔한 후 국립발레단의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해왔다. 모스크바 국제무용콩쿠르 은상, 한국발레협회 프러미발레리나상 등을 수상했다. 티켓 가격 8만8000원~2만0000원. 문의 062-220-05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일 최승준·조이수씨 초청

'미디어아티스트 기술 아카데미'

광주문화재단은 3일 오후 1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미디어아트 전문가를 초청, '미디어아티스트 기술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최승준·조이수씨 등이 강사로 나서 '뉴미디어 작업에 활용 가능한 HTML5 기술 탐색', '아이폰과 지터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제어'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최씨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저작권의 공유와 개방을 추구하는 'Creative Commons Korea'와 함께 열린 창작문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조씨는 조이수 미디어아트 연구소장으로 서울대·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670-7915.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최승준

광주현대무용단 '자메뷰' 광주무용제 대상

김미선씨 연기상 수상

제21회 광주무용제에서 광주현대무용단의 대상을 받았다.

지난 30일 광주문화예회관에서 열린 이번 경연에서 광주현대무용단(단장 임지형)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교감의 순간을 역동적 춤사위로 표현한 '자메뷰(Jamais Vu)'를 공연,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에서 안무를 맡고 출연한 김미선(조선대 무용과 객원교수)씨는 연기상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에 대해 '쓸쓸함, 외로움에서 나오는 혼돈을 따뜻함과 치유, 또 다른 인연으로 묘사하고자 했던 안무의도가 잘 표현 되었다'며 '무용수들의 기량과 표현력도 탁월하고 작품의 형식과 구성도 잘 짜여졌다'고 평했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18일~28일까지 여수에서 열리는 제 21회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출전, 14개 시도 대표팀과 경합을 벌인다. 지난해 전국무용제에서는 광주로알발레단이 대통령상 등 4관왕을 수상했다.

이날 경연에는 김미숙부리한국무용단 등 4개팀이 참여해 경연을 펼쳤지만 일부 참가작의 경우 작품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이 무의미한 나열에 그치는 등 수준변

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타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자메뷰'는 무대를 넓게 활용하며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낸 점이나, 관객들을 압도하는 파워풀한 몸동작이 돋보였다. 하지만 일부 소품의 사용이 작품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특히 일부 출연진들이 작품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해 결단점 등 아쉬움도 눈에 띄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타운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 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